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발등의 불'

### 올해 절반 이상 만료... 중소기업계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 우려 법제화 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지난달 만료된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 절반 이상이 만료된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현행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감시·상생협약을 포함한 적합업종 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중 시장감시와 상생협약을 제외한 적합업종 지정 품목은 총 49개에 이른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에 마련됐다.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진입장제, 확장장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하다.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3+3)할 수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은 합의에 의한 권고사항을 대·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올해 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도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 만이라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적합업종 11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3+3' 권고기간 동안 제빵, 전통떡, 순대 등의 업종에서 사업성과가 컸다면 적합업종 해제 즉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영역 침투가 시작될 것이라며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부 부처와 대기업 등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효과가 없으면서 법제화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에 위배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금형 2개 품목에 대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동반위 중재 하에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금형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협력이 기반인 납품처와 발주처로 일반 소비자 품목처럼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수준에서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올해 권고기간(3년)이 만료되는 7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재합의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재합의 대상은 어분(4월), 예식장업(6월), 떡국떡 및 떡볶이떡, 박엽지(8월),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 활성제(11월), 보합대차서비스업(12월) 등이다.

동반위는 "해당 품목과 업종들은 시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대·중소기업 간 자율협의를 거쳐 재합의 또는 상생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북은행, 정읍시청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전북은행은 10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지난해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3,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두형진 부행장, 고운택 정읍시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제휴기금은 정읍시청과 전북은행간의 업무제휴로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액의 1%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정읍시에 전달해 왔다.

김생기 시장은 "전북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형진 부행장은 "정읍시민들을 위해 특화된 금융상품으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남부시장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

지난 8일 전주남부시장에 특별한 외국인들이 찾아왔다. 전주남부시장을 세계적인 명품시장으로 알리기 위한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의 주인공들이다.

전주남부시장 글로벌 서포터즈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각자 SNS 온라인 매체를 활발히 활용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영국 등 총 7개국 출신의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남부시장의 일상적인 모습을 경험하거나, 주요 행사들에 참석하여 전주남부시장의 소식을 전세계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주남부시장장인 회장을 비롯해 남부시장 글로벌사업단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에 대해 소개 하고, 함께 남부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알란 고메즈(과테말라)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감탄했고, 한국에서 이러한 의미있는 일에 참가하게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남부시장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 전북도, 전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부시장상인회가 주최 주관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글로벌사업단(☎063-717-1336)을 통해 알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개발공사, 성평등문화 '히포시' 캠페인 전개

전북개발공사가 지난 7일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히포시(HerForShe) 캠페인' 참여 행사를 가졌다.

'히포시 캠페인'이란 유엔 내 여성 권의 총괄기구인 유엔여성이 진행하는 글로벌 성평등 연대운동으로, '여권 신장을 위해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공사 고재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히포시 캠페인의 취지 및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편견·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

는 시간을 가졌으며, '히포시 캠페인'을 적극 지지한다는 마음을 담아 '히포시' 사인지에 서명하고, 인증샷을 촬영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가족의 날' 운영을 통해 정시출퇴근을 보장하는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반려동물과 소 접촉 차단으로 유산을 낮추자"

(牛)

### 야생동물이 개 분변에 오염된 뒤 소에게 전파

농촌진흥청은 소와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농가라면 반려동물이 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의 유산인 원인 중 하나인 네오스포라증은 네오스포라원충에 의한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축사 내 접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개의 분변에 오염된 사료나 물을 소가 섭취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고양이와 야생동물이 개 분

변에 오염된 뒤 소에게 전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에서 나타나는 네오스포라증의 주요 증상은 유산과 사산이다.

선천적으로 네오스포라증에 감염된 송아지는 신경증상이나 잘 서지 못하고(기립불능), 발육이 더딜 수 있으나 주로 증상 없이 성장해 유산을 반복하게 된다.

실제로 네오스포라에 대해 항체가 형성된 젖소(항체 양성)는 항체 음성 젖소와 비교해 유산 위험이

5.3배 또는 6.1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암소 232마리 집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네오스포라의 항체 양성인 소 13마리 중 50% 이상인 7마리에서 유산이 관찰됐다.

네오스포라증은 감염 소와 접촉한 소가 걸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임신 중인 어미에서 송아지로 수직전파 되는 데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이다.

농장에서는 유산된 소의 태아, 부산물, 태반을 개가 섭취하지 못

하게 하고, 개의 분변 속 총으로 소가 먹는 사료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네오스포라 항체 양성인 소는 번식에 사용하지 않는다. 시·도에 따라 가축질병검역기관에서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김찬란 수의연구사는 "높은 유산율이 관찰되는 축산농가에서는 반려동물과 가축이 함께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유산을 낮추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롯데백화점 전주점, 산지직송 행사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도내 농수산물 유통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주점은 진안 귀농인(장하천)이 생산한 고랭지 표고버섯 산지 직송전을 진행해 뜨거운 반응과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지사 인

증상품 기업협의회'와 함께 7일부터 16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 식품관에서 산지직송 행사를 진행한다.

전주점장은 진안군 상전면 일대 표고버섯 생산지를 직접 방문해 수확시기 및 출하량을 직접 체크하고 전년보다 일찍 산지직송전을 확대 시행한다.

/인재용 기자

### 전주농협 경제사업 100억 달성 다짐대회 개최

전주농협은 지난 7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임원, 선도 농가 조합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농협 경제사업 100억 달성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업인이 행복한, 조합원의 도시형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기치를 걸고, 내병훈 상임이사의 경제사업 100억 달성 추진계획 설

명이 이어 농업중앙회 미래전략부 금융팀장의 '도시형 농협의 경제사업 기반구축 전략'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인근 김제시 소재 공덕농협과 각자 비교우위를 점하는 사업분야에 대해 서로 교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도농 상생협력 자매결연을 가졌다.

/인재용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사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사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사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 적십자사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